

나의 괴로움을 밝고 오소서, 밤이 오면 내 사랑은 한갓 잠
자는 나무에 지나지 않습니다 [B]

2

잠든 잎새들을 가만히 흔들어 봅니다 처음 당신이 나의
마음을 흔들었던 날처럼 [C]

깨어난 잎새들은 잠들고 싶어합니다 나도 잎새들을 따라
잠들고 싶습니다

잎새들의 잠 속에서 지친 당신의 날개를 가려주고 싶습
니다 [D]

그러다가 눈을 뜨면 깃을 치며 날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보이겠지요

처음 당신이 나의 마음을 흔들었던 날처럼 잎새들은 몹시
떨리겠지요 [E]

- 이성복, 「어두워질 때까지」 -

31. ㉠~㉥의 시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가정적 진술을 사용하여 '당신의 입술에 닿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부각하고 있다.
- ② ㉡: 부정 표현을 이중으로 제시하여 '한 해 두 해'라는 시간의 흐름이 길게 느껴진다는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③ ㉢: 대상을 의인화하여 '도화'가 '낙화'가 되는 과정에서 느끼는 화자의 애상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머리'가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부사어를 활용하여 '우리'의 재회에 대한 화자의 믿음과 기대가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다.

32. [A]~[E]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화자가 '이런 사랑을 받으며' '당신' 일만 생각한 것은, '당신'의 사랑에 만족하며 감사해하는 마음을 드러낸다.
- ② [B]에서 화자가 '나의 괴로움을 밝고 오소서'라고 한 것은, '당신'에게 자신의 본심을 들키지 않으려는 태도를 드러낸다.
- ③ [C]에서 화자가 '나의 마음'에게 '당신'이 했듯 '잠든 잎새들'을 '흔들어' 본 것은, '당신'에게 깨달음을 주려는 태도를 드러낸다.
- ④ [D]에서 화자가 '당신의 날개를 가려주고 싶'다고 한 것은, '당신'의 행동을 제약하고 싶은 태도를 드러낸다.
- ⑤ [E]에서 화자가 '깃을 치'는 당신으로 인해 '잎새들'이 '떨리겠'다고 한 것은, '당신'에 대한 경외심을 드러낸다.

33. ㉠과 ㉡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는 모두 화자가 긍정적인 앞날을 예견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 ② ㉠과 ㉡는 모두 화자가 '당신'과 함께했던 특정 추억을 떠올리는 공간이다.
- ③ ㉠은 화자가 사랑으로 인해 겪은 시련을, ㉡는 화자가 지닌 사랑의 열정을 환기한다.
- ④ ㉠은 화자가 답답함에 벗어나고 싶어 하는, ㉡는 화자가 오래도록 머물고 싶어 하는 공간이다.
- ⑤ ㉠은 화자가 사랑을 통해 위안을 얻는, ㉡는 화자가 사랑이 끝나리라는 불안을 감지하는 공간이다.

3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시에서 이별을 겪은 화자는 사랑의 순간을 돌이키고자 하거나 혹은 잊어버리고자 한다. (가)의 화자는 이별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고, 이별을 가짜의 상황으로 인식함으로써 재회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나)의 화자는 이별로 인해 겪었던 아픔을 감내하면서 지난날의 회상을 감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전자의 경우 이별을 상상의 차원에서 극복하고자 한 것이며, 후자의 경우 이별이 자연의 섭리처럼 개인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일임을 형상화하고자 한 것이다.

- ① (가)의 '쪼이는 가을 별'은 이별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는 화자가 의도적으로 왜곡한 풍경을 의미하는군.
- ② (나)의 '바람에 불리는 풀잎 하나도 괴로움이었'다는 것은 작은 것에 고통을 느낄 정도로 이별을 힘들어했던 화자의 상황을 보여 주는군.
- ③ (가)의 '백설'은 재회를 꿈꾸다 늙어 가기만 하는 화자의 처지를, (나)의 '노을빛에 타오르는 나무'는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내는군.
- ④ (가)의 '희망의 바다'는 이별 후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화자의 마음을, (나)의 '잠자는 나무'는 이별 후 슬픔을 감내하는 화자의 마음을 형상화하는군.
- ⑤ (가)의 '이른바 거짓 이별'은 화자가 상상의 차원에서 이별을 없던 일로 치환하고 있음을, (나)의 '날아가는 당신의 모습'은 화자가 이별을 현실적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섭리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